

히야마성 - 니노마루, 혼마루, 산노마루

기리야마산(해발고도 145m) 정상에는 ‘기리야마성’이라고도 불리는 히야마성 터가 있습니다. 이 산성은 15 세기 후반에 안도 씨에 의해 단계적으로 축조되었으며, 축성 시 산의 광활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산 정상 주위를 성벽으로 둘러싸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은 1620 년에 해체되어 평평한 땅과 흙으로 된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3km² 이상이며, 일본의 대부분 성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내성(혼마루), 외곽(니노마루), 최외곽(산노마루) 유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성의 정확한 배치를 밝히고, 성의 구조에 대해 보다 많은 식견을 얻기 위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589 년에 일어난 권력 다툼입니다. 안도 씨는 미나토 안도 씨와 당시 우세했던 아키타 씨의 두 분파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나토 안도 씨는 히야마성을 점령하고 아키타군에 침공당할 때까지 150 일간 농성했습니다. 농성전에 대비해 조준선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성 주위 사면에 있는 나무는 베어져 나갔습니다. 사면에는 산마늘이 심어졌는데, 이는 공격하는 측에는 땅이 미끄럽게 느껴지게 했고, 방어하는 측에는 식량이 되어주었습니다.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내성에서는 서쪽으로 노시로시에서 일본해(한국 동해)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북쪽에는 시라카미 산지의 산들이 솟아 있습니다.